



## 삼성·LG전자에 찬밥인 'LCD'… 중국만 배 불렸다

OLED 집중 삼성·LG, LCD 철수  
LCD,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최고  
닌텐도 신제품 LCD 회귀 사례도  
中 3개社, LCD 점유율 66% 차지

프리미엄 TV 시장을 겨냥해 OLED(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남겨진' 액정표시장치(LCD)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중국업체들이 그 공백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이유로 고부가가치 전략에 집중한 나머지 수익성이 남아있는 시장을 성급하게 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액정표시장치(LCD)의 점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올해 글로벌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LCD가 807억달러(약 111조4000억원), OLED는 483억달러(약 66조60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OLED는 약 77억4234만달러(약 10조7200억원), LCD는 약 69억2399만달러(약 9조5900억원)로 격차는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 D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고수하며 LCD 사업에서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광저우 LCD 생산라인을 중국 TCL 자회사 CS OT에 공식 매각하며 LCD 사업에서 사실상 완전히 손을 뗐다. 삼성디스플레이도 2022년을 끝으로 LCD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양사의 OLED 중심 전략은 제품 라인업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올해 OLED TV 모델을 10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40~80인치 이상까지 다양한 크기를 선보였다. LG전자는 북미·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 2025년형 OLED TV를 순차 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 매각을 통해 확보한 2조2000억원을 OLED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LCD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다. OLED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글로벌 TV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가제품과 휴대기기에서는 여전히 LCD가 주력이다. 삼성과 LG 역시 전체 TV 판매량의 약 80~90%는 여전히 LCD 기반이다.

실제 역행 사례도 나타났다. 닌텐도는 전작 '스위치1'에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했으나, 오는 6월 출시될 '스위치2'에서는 다시 LCD로 회귀했다. 배터리 효율성과 내구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결국 국내 업체들이 비운 LCD 수급의 '틈새'를 중국 패널사들이 빠르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4일 베트남 하노이 산업무역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8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

## '트럼프 관세'에 뭉치는 아시아 韓-베트남 경제협력 확대 협의

안덕근 장관, 응우옌 베트남 장관과  
한-베 산업공동위·FTA 공동위 개최  
수출기업 비용절감 등 협력방안 논의

정부가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한중일FTA 협상 재개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4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방문, 응우옌 흥지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4차 한-베 산업공동위', '제8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선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베트남 원전 협력, LNG 발전 협력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과 함께, 유통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재개와 섬유·의류 산업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베FTA 개정, 농축산물 수출입 품목 확대, 양국 수입규제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정부간 2건, 기관간 1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 원전 및 전력망·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대응 협의

와 관련해선 "(트럼프 상호관세 대응 차원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에 46% 고율의 트럼프 관세가 부과된 데 따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베트남과의 관세율을 직접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 등 양국 무역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울러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을 만나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와도 고위급 회담 및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일본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FTA 협정 재개에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필리핀과 교역 투자와 공급망 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중일FTA 협력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년 만에 중국, 일본,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대응으로 3국 자유무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한중일 3국이 미국에 대항해 뭉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전자제품 관세 혼란에 트럼프 "예외 없다"

"스마트폰 등 다른 형식으로 부과 반도체 관련 구체적 입장 곧 발표"



세관국경보호국이 공개한 지침을 인용 보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이달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요일(11일)에 발표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들 제품은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문제삼아 중국에 매긴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단지 다른 범주의 관세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

여다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미국)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수지, 비금전적 관세 장벽을 이용한 국가 중 그 어디도 면죄부 대상일 수 없다"며 "특히 우릴 가장 심하게 대하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다"고 썼다.

중국산 전자기기에 지난 2월과 3월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적용돼 왔다. 향후 반도체와 함께 품목 관세로 전자기기에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관해 14일(현지시간)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는 12일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14일)에 반도체에 대해 답하겠다"며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 대통령 권한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해결 노력"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히틀러의 나라 안 돼, 이제명 심판해야"

▲안철수 "이재명, AI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 토론 제안

▲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직전 대비 75억 ↑

▲이준석, 국힘 단일화 선긋고 "TK의원들,尹에 목숨 걸고 직언했나"

▲국힘 "경선서 특정인 옹립 없어…당 화합 해치는 발언 엄중 책임"



▲한 대통령 권한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해결 노력"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히틀러의 나라 안 돼, 이제명 심판해야"

/사진 뉴시스

# 코스피 약서… 증시 발 빼는 투자자 예탁금·빚투 줄고, 반대매매 급증

금투협, 증시 주변자금 164.4조 지난달 대비 3.5조, 2.1% 줄어 연초부터 일평균 반대매매 증가 1월 46억, 2월 52억, 3월 63억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하는 등 국내 증시가 최근 일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증시 대기 성 자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실제 주식을 사고파는 금액뿐 아니라, 투자에 대비해 쌓아둔 자금도 줄어들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164조 4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167조 9706억원)보다 3조 5000억원 (2.1%)가량 줄어든 것이다. 증시 주변 자금이란, 주식 거래에 아직 쓰이진 않았지만 언제든 쓰일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증시 주변 자금엔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긴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약 54조원), 증권사에 보유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인 ‘신용 거래 융자 잔액’(약 16조원) 등이 포함

된다. 통상 1~3개월 뒤 확정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사는 ‘환매 조건부 채권’(약 93조원)도 주변 자금에 해당한다.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어 주식 거래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급등락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위험도가 높은 주식은 당분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올 상반기 7% 이상 떨어지는 등 증시가 악세를 보이자, 투자 자금뿐 아니라 ‘투자 대기용’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코스피 거래 대금은 총 213조원으로 한 달 전(244조원)보다 13% 가량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87조원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증시 주변 자금도 줄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증시 약세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비관론과, 높은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빚투(빚내서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매매에 대한 공포도 시장 참여를 꺼리게 한다. 증시가 급락한 지난 9

일 발생한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10일에도 125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나왔다. 올해 들어 미수금 중 반대매매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 일평균 금액은 1월 45억 9687만원, 2월 52억 4682만원, 3월 62억 7303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주가가 급락하면 담보의 자산 가액이 줄어든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주식을 처분한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적절한 현금 비중 확보가 필요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티몬 새 주인 찾았다… 법원, 인수예정자에 ‘오아시스’

100% 신주인수방식… 116억 지급 퇴직금 등 총 65억 추가 변제하기로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의 새 소유주가 된다.

1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본격화되면 오아시스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116억원 규모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주 인수 방식은 기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티몬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해 지분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자금



오아시스 기업 전경. /오아시스

으로 티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35억 원도 추가로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오아시스는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도 회생 법원에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메프 사태의 핵심 주축이었

던 티몬은,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로 지난해 7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약 2개월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몬은 내달 15일까지 오아시스의 인수합병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티몬 측 관리인은 오아시스의 인수합병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율은 약 0.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아시스마켓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몇 시간 사건 공소장에 박아넣어… 법리에 맞지 않아”

**민간인尹, 첫 정식 형사재판**  
검찰,尹에 ‘윤석열 피고인’ 칭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구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공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거쳐 입장

하겠다고 요청했고,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탄 채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 진술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 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었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또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규진 기자 ch9720@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차린 선거사무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이재명, AI기업 방문 첫 행보 홍준표, 직 내려놓고 “출마”

### 국민의힘·민주당 대선주자 행보

제21대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펩리스(설계 전문기업)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분야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라며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라고 부연했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착실히 추진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며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잊고 미래 새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AI 핵심 자산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AI 공약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AI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기술 시연을 지켜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퓨리오사AI는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중 한 곳으로, 올해 초 미국 메타와 매각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는 계속 뒤쳐지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하는데, 퓨리오사AI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 같다”며 “함께 현장을

逛해보고, 특히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이 많이 필요한지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13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정치권이 합의해 용산을 벗어나 서울과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여의도 선거사무실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 앞에서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른 지자체장들이 직을 내려놓지 않은 것과 달리, 홍 전 시장은 직까지 내려놓으며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다. 그의 출마선언식에는 박덕흠, 유상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라며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라고 부연했다.

홍 전 시장은 개헌을 착실히 추진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며 “거대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경륜과 관록으로 국가 정통성을 바로 잊고 미래 새시대를 여는 올바른 개헌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양원제·중선거구제 도입 등 개헌으로 개혁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정 철학과 비전으로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자유와 창의 경제’ ▲핵 균형과 무장 평화 ▲생산성에 따르는 분배,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복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내쫓는 탄핵 방식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았다. 이젠 친탄·반탄에 얹매일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분양물량 65% 급감…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단 한건

건설사, 정책 불확실성 등 고려  
수도권 등 분양일정 연기 속출  
‘잠정 휴업상태… 매우 힘든 시기’

작년 연말 이후 탄핵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날짜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올 1분기 분양 물량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가운데 대선 불확실성으로 당초 대선 전까지 2만 가구 이상 쏟아내려던 건설사들이 분양을 진행할지 고심 중이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1만 2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줄면서 지난 2009년 5682가구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

월별로는 1월 5947가구, 2월 2371가



조기 대선으로 아파트 분양이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스

구, 3월 4040가구 등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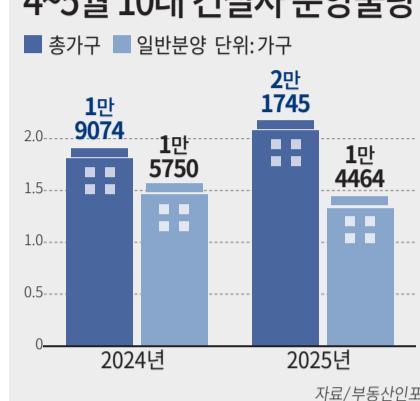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물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에서는 1분기 동안 아파트 청약이 단 한 건이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부동산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6225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9.8%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94.8%, 서울 -74.5%, 경기 -57.3%로 모두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남현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다”며 “정책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려 분양 성수기에도 분양시장은 잠정 휴업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대선 직전까지 4~5월 두 달

## 4~5월 10대 건설사 분양물량



간 10위권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는 총 2만 1745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서 미뤄졌던 물량들이 포함되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1분기 분양 역시 계획 대비로는 3분의 1수준도 풀리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선거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 분양 성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마수걸이 분양이 6월에나 가능할 것 같은 매우 힘든 시기다”라고 전했다.

시기적으로는 연휴도 겹쳤다.

당장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비롯해 주말과 5일 어린이날, 6일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로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만큼 당장 보름 정도 남은 4월이 아니면 대선 이후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차 분양 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난 2017년 경험한 탄핵과 조기 대선은 이벤트를 전후로 한 신규 분양시장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바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금융분야 등 주요정책 차질 ‘제4 인뱅’ 예비인가 불투명

6월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예정  
대규모 인사 등 정책 변화·폐기 우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이 모두 교체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어서다. 당장 오는 6월 예비인가 심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번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뱅크, AMZ뱅크 등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했다. 금융위는 이들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오는 6월 중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AMZ뱅크 제외 자금조달 가능성 ‘충분’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자금조달 가능성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보고 심사 기준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소상공인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11개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부업체인 리드코프 등이 참여해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포도뱅크는 해외동포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조성한 펀드인 한상이 1대 주주로, 군인공제회, 한국대선자산운용, 희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한다.

한국소호뱅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끈다. 현재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대 은행의 투자처를 확보했다.

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를 중심으로 200만 농업인과 전체 인구 32.5%를 차지하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를 대상으로 금융을 제공한다. 단, AMZ뱅크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자금조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 ◆ 다음 정부에 달린 ‘제4인뱅’ 출범

다만 4개 컨소시엄의 지원에도 네 번째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불확실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은행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이 모두 교체되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초부터 네 번째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했다. 김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인가 과정이 새 정부로 넘어가면 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비인가 심사부터 추진력이 떨어져, 내용이나 강도 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Aa2  
 Moody's 국제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美·中 ‘치킨게임’에 환율 널뛰기… 달러값 4개월 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 1424.1원, 25.8원 ↓  
美-中 무역 갈등에 달러가치 급락  
달러인덱스 21개월 만에 100 하회  
달러 하락 속, 금 가격 급등세 지속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지만 달러화 함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나흘 만에 10% 가까이 치솟았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4.1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주간 종가와 비교해 25.8원 내렸다(원화값 상승). 달러가 종가 기준 142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하면서, 통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환율을 끌어내렸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주간 종가 기준 1481.1원까지 올랐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이달 초 트럼프가 57개 국가(한국, 일본을 비롯한 56개의 개별 무역국, 그리고 유럽연합)를 상대로 예고했던 ‘상호관세’의 도입을 하루 앞두고 달러 가치가 상승했고, 상대적 ‘위험자산’인 원화 가치는 낮아졌다.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예정했던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도입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세를 인상해 미국을 향한 보복에 나선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지속할 것이며, 기존의 팬타닐 관세(20%의 보편관세)에 별개로 적용되는

관세율도 84%에서 1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고강도 관세 조치를 결정하자, 중국도 같은 날 84%로 예정했던 대(對)미 관세를 125%로 즉각 인상했다. 또한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미국을 향한 보복 수위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자 달러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산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통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상대국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지난해 미국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다. 액수로는 약 4400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對)중 수출액은 145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해, 수입액 대비 33% 수준에 불과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달러의 약세에 타 통화 대비 달러 가

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는 지난 11일 99.892(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까지 내렸다.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 최고치는 1월 13일 기록한 109.812였다.

달러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주요 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치솟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 선물시장에서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2973.60달러에 거래됐던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11일에는 온스 당 3244.60달러까지 상승했다. 4일 만에 9.1%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화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상호관세 혼선 지속에 따른 달러 약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더욱이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 주요국 통화에 대한 절상 요구가 포함됐을 경우 유로 및 엔화 가치의 추가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전망치로는 달러당 1400~1450원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글로벌 금융 불안 속 ‘금값 질주’…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3200달러 돌파, 투자상품 수익률 급등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 14.79% 상승  
전문가들 “당분간 금값 강세 지속”

국제금값이 트로이온스(약 31.1g)당 3200달러를 넘나들면서 금가격에 연동한 투자상품 가격도 뛰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는 한달간 14.79%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KODEX 골드선물(H)’과 ‘TIGER 골드선물(H)’도 각각 7.59%, 7.47%의 수익률을 올렸다. KRX 금현물지수를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역시 4.67% 상승했다.



이들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 또는 일본 도

쿄 선물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최근 고공 행진하면서 금 등세를 타고 있다.

투자자들의 금 선호 현상도 뚜렷하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ACE KRX금현물’을 639억 원어치 순매수했으며, 외국인들도 39억 원을 사들였다.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과 이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축이 겹치면서 눈에 띄게 뛰고 있다. 14일 온스당 3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국내 금 현물 시장에서도 1kg

짜리 24K 금은 g당 14만8400원을 기록, 지난 2월 최고가에 근접했다.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의 장기화, 미국 국채 매도 증가,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 할수록 투자 매력이 높아지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원자재 투자 전문회사 위즈덤트리의 니테시 샤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으며, 이런 혼란 속에 금은 가장 선호되는 안전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달러

화 절하와 미국 국채 매도세, 그리고 미국에 대한 교역 신뢰도 저하가 모두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 분쟁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 가격 전반이 조정을 받을 때야말로 오히려 금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 wkh@

## 韓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경제안보전략TF 주재, 협상 의지  
“양국 통상 협상, 관세 부담 최소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 간에 일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내적으

로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도 계속 기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관세 유예에 LNG 조선 협력 방안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중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얘기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각 부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으로써 우리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와 국내 진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 요청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논의도 부탁했다. 한 권한대행은 소위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 머거리 위한 ‘반도체 특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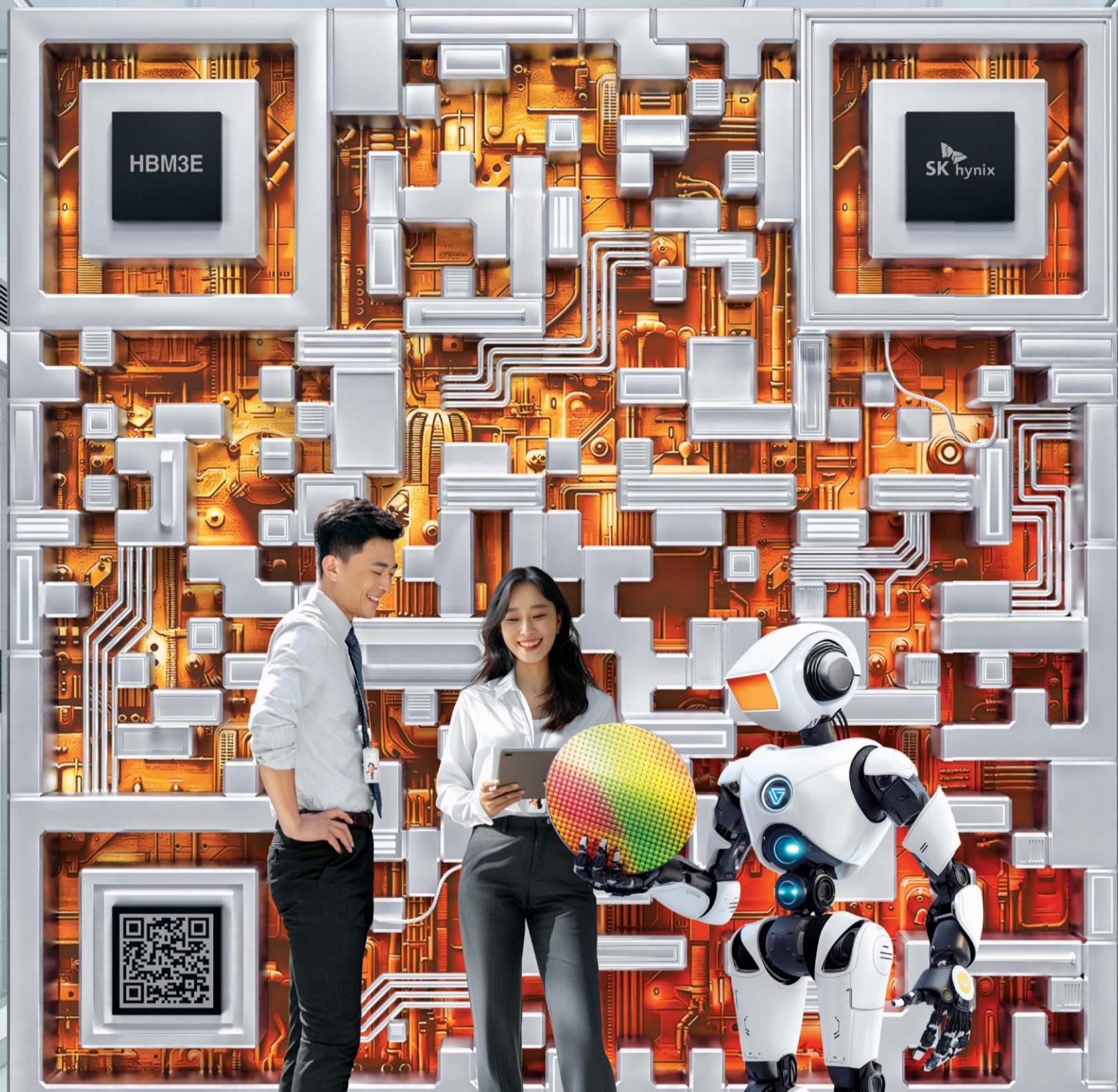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

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서예진 기자 syj@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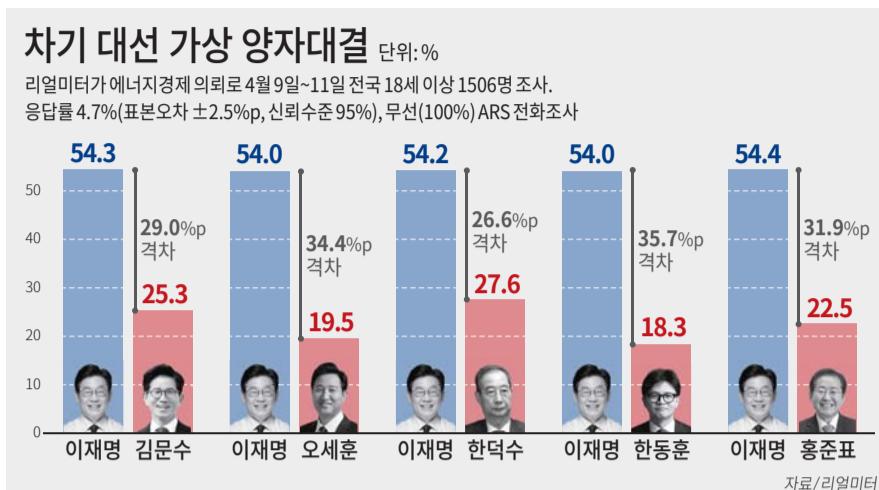
# 李, 대선 가상 양자대결 ‘압승’… 한덕수, 최저격차 기록

한덕수 ‘26.6%p’로 李 최근접 격차  
김문수 29.0%p, 홍준표 31.9%p 차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 ‘韓 견제구’  
민주당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대표와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대선 양자대결 조사를 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 5인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26~35%포인트로 격차를 벌리며 우세를 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최근접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54.2%, 한 권한대행은 27.6%를 기록해 2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 전 대표가 두 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지만, 한 권



한대행은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5.3%)이 이재명 전 대표(54.3%)와 한 권한대행 다음으로 적은 차이(29.0%포인트)가 났다. 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한 권한대행에게 밀린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2.5%, 이 전 대표는 54.4%를 기록해 31.9%포인트 차이를,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19.5%)은 이 전 대표(54.0%)와 34.4%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3%)가 이 전 대표(54.0%)와 양자 대결로 붙은 5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격차(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48.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전 장관(10.9%), 한덕수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대표(6.2%), 홍준표 전 시장(5.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문수 전 장관을 바짝 쫓고,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93.7%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 경쟁력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2.7%로 1위, 한덕수 권한대행이 19.2%로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1%, 홍준표 전 시장은 13.7%였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심지어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은 견제구를 던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과 관련해 “우리는 후보로 나오라고 훈들고 야당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훈들고 그러니 나라가 잘되겠나. 굉장히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며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

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출마 말고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의미한 국우 경선에서 승리할 후보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 단일화 쇼를 벌이며 당권을 유지하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세력에게 유행처럼 번진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며 좌각에 빠지는 병이라는 의미)에 걸려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기울거릴 게 아니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383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자동응답(ARS)으로,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RDD)를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한덕수, 대정부질문 일방적 불출석… “지금까지 없었던 일”

우원식 “교섭단체 양해·의장 허가 없어 예정된 일정… 불출석 가당치 않아 무책임한 태도 반복되어선 안 될 것”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선거 차출론이 불거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일부로부터 대선 출마 요구를 받고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불출석에 대해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평계 맨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는”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맡기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

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은 모래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한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한 통화를 보도로 나온 경위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대통령으로 지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민주당 경선률 ‘당심 50%·여조 50%’ 확정

김두관 ‘반발’… 김동연 ‘수용’  
‘외부유입 세력’ 우려에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6·3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했다. 기존 ‘국민 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사라진 셈이다. 이같은 결정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강력 반발하며 경선 거부를 선언했다. 반면 경선 참여를 고심하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

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후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경선률을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특별당규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 당원 온라인 투표에 부쳐졌다. 권리당원 114만749명 중 38만9033명(34.1%)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6.56%인 37만5978명이 찬성했

다. 반대는 3.44%로 나타났다. 중앙위원회는 590명 중 5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492명이 찬성했다.

이번 경선 규칙은 지난 19·20대 대통령 선거 방식과는 다르다. 당시에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 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했다.

10년 이상 유지해온 경선 방식을 바꾼 이유는 20대 대선 경선 마지막 투표 때문이다. 앞선 경선에 압도적으로 이기던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외부 유입 세력이 ‘역선택’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40시간 근무·주4.5일제 추진”

주5일 중 4일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 4시간 근무 후 퇴근

국민의힘이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주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라며 “직원들은 월~목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외에 한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이는 기존 주5일제를 유지하면서도 주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는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인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lt;예·적금 상품 금리비교&gt;

	금융회사	상품명	세전이자율
3년만기 정기예금	제주은행	제주Dream정기예금	2.65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2.60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2.60
3년만기 적금	케이뱅크	코드K자유적금	3.50
	하나은행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3.40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Zero!적금	3.40

## 금리, 오늘이 가장 높다 예·적금 2~3년이 유리

기준금리 내년 2.25%로 인하전망  
5대 은행 6개월 예금 평균 2.96%  
장기 예·적금상품 금리는 더 낮아  
단기보다 2~3년 장기 가입 유리

지난 2월 기준금리(연 2.75%)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년 2.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기가 2~3년으로 긴 예·적금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나온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달 실제 취급한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평균 연 2.96%로 나타났다. 36개월(3년) 정기예금 금리(연 2.94%)보다 0.0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적금 상품도 만기가 짧은 상품의 금리가 높다. 이를 은행의 1년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는 연 2.81%로 3년 만기 적금 상품(연 2.66%) 보다 0.15%p 높다. 통상 은행들이 단기보다 장기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금리를 높게 지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은행들이 2~3년 장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금리 인하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선 3년 만기 예금금리 2.94%, 적금금리 2.66%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기준금리가 실제로 2.25%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높은 금리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이 장기 예·적금 상품을 늘리면 2~3년 뒤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만기가 짧은 상품의 금리

를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기 안정적인 투자처로 은행의 예·적금을 선택할 예정이라면 만기가 긴 상품이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재 3년 만기 기준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제주드림(Dream) 정기예금으로 세전 이자율이 연 2.65%(세후 연 2.24%)다.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2.60%(세후 연 2.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예금상품을 3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 제주은행은 세후 67만2000원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66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적금 금리는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의 금리가 세전 연 3.50%(세후 2.96%)로 가장 높다. 하나은행의 주거래 하나 월복리적금과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의 금리도 각각 세전 연 3.40%(세후 연 2.88%)의 금리를 제공해 뒤를 이었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과 하나은행의 주거래 하나 월복리적금은 자유적립식이다. 수협은행은 정액 적립식으로 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 시 15만484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장기간 예·적금 상품금리를 높여 자금을 마련했다”면서도 “금리인하기에는 장기간 고정된 이율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1년 만기의 단기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우리은행, 인사카드서 학력·지역 등 삭제

업무능력과 연관성 적은 정보 제외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기대

우리은행은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인사카드에서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업무능력과 연관성이 적은 인사 정보를 삭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인사카드는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업무경력, 자격증, 시상 내역 등 업무능력 파악을 위한 정보 외에도 학력, 병역, 출신 지역 등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관행적 정보를 전격 삭제해, 실력으로 승부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진완 은행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 종로 우리은행 본점. /우리은행

/안승진 기자 asj1231@

##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도 '내리막길'

다올저축은행 금리 2.8% '최고'  
은행 금리인하·대출축소 등 영향

조건 없이 연 3%대 금리를 지급하던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가 모두 2%대로 내려 앉았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은행 정기예금상품 수준의 금리혜택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금리 노마드족' 사이에 인기였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가장 높은 파킹통장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다올저축은행이다. 'Fi 저축예금'에 연 2.8% 금리를 적용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2년 4분기에 출시했다. 당시 연 3.20% 금리를 적용했지만 꾸준히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수신금리가 2번째로 높은 상품은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이다. 연 2.60% 금리를 지급한다. 출시 당시와 비교하면 연 1.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어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지난해 연 3%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달 연 2.25%까지 떨어졌다.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의 일종이다. 유동성과 고금리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권이 별도의 마케팅을 강화하지 않았지



Chat GPT가 생성한 '통장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 이미지.

만 입소문만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한동안 파킹통장 금리는 내리막길을 걸을 전망이다. 주요 조달수단도 아닌 데다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이겠다는 기조가 확산하면서다. 저축은행은 운용자금의 90%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조달한다. 같은 이자를 주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정기예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반적인 대출 규모가 쪼그라든 것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6조7312억원이다. 지난해 9월 월간 여신잔액이 4964억원 증가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2022년 11월(116조 2238억원)을 시작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도 저축은행권에서는 파킹통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저축은행간 마케팅 경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기준 우대금리 포함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은 우리은행의 '우월한 월급통장'이다. 최대 연 3.1% 금리를 준다. 반면 저축은행권에서는 OK저축은행 'OK颤태크통장II'이 최대 연 7%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의 '머니모으기' 통장은 최대 연 5% 금리를 지급한다. 우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우 최초 설정한 예치금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해야 한다. 한 주라도 예치에 실패하면 우대금리(연 2%)를 받을 수 없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의 'Fi 쌍짓돈통장'은 최대 연 3.30% 금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해당 금리를 적용하는 예치 한도는 100만원에 그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은 신규 회원을 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 당초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고금리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삼성물산, 차세대 주거플랫폼 '홈닉' 타 브랜드로 확대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에 도입  
개방형 홈플랫폼 생태계 본격 확장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의 차세대 주거플랫폼 '홈닉'이 다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플랫폼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HS화성의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에 홈닉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홈닉이 보유한 홈IoT, 커뮤니티시설 예약, 차량관리, 디지털 관리사무소, 생활 서비스 등 래미안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홈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입주민들은 홈닉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스마트 주거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홈닉 앱 하나로 세대 내 홈IoT 기기 제어는 물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차량관리, 디지털 관리사무소 서비스 이용, 공동구매, 소모임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다.



삼성물산 홈플랫폼 홈닉. /삼성물산

삼성물산 H&B플랫폼사업팀장 지소영 상무는 “개방형 플랫폼인 홈닉은 앞으로 래미안을 넘어 다양한 건설사 및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생태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주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SK에코플랜트, 반도체·AI 스타트업 기술 발굴·육성

테크 오픈 컬래버레이션 공모전  
창진원·무역협 등 15곳 공동주최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테크 오픈 컬래버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AI 분야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오픈 이노베

이션)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에코플랜트가 주관하며 창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카이스트, 한남대학교, SK증권, 한국과학기술지주 등 공동·연구·투자기관 15곳이 공동주최를 통해 힘을 모은다.

공모전 모집 분야는 ▲반도체 EPC

▲반도체 공정 ▲반도체 용수 ▲반도체 부산물 ▲로봇/AI ▲수처리/소각/탄소저감 ▲해양 및 해상풍력 ▲공동주택 친환경/에너지 등 총 8개다. 모집 분야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 SK에코플랜트 홈페이지 팝업 배너를 통해 연결되는 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 철강업계, 노사분쟁·저가경쟁 일단락… 2분기 업황반등 기대

증권가, 1분기 실적 부진 전망  
반덤핑 조치 등 시장환경 변화  
'생산 정상화·수요 회복' 맞물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내수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1분기 실적도 급전직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절적 수요 회복과 정부의 반덤핑 조치 등 대내외 변수 개선에 힘입어 2분기에는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200개 이상의 건설 기업들은 지난 3월에 총 514만톤 건설용 강재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23.6% 증가한 수치이며 4월 예상 구매량은 591만톤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건설용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지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연간 총 생산량이 10억톤에 달하는 중국 철강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인해 해외로 수출 물량을 빼돌려왔으며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앞선 중국 철강사가 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시장에 유입되며 한국 철강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철강업계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 증권가에서도 주요 철강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는 1분기 철강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약 5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제철의 올 1분기 매출은 5조 5615억원, 영업이익은 2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동기 대

비 96% 줄어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당진 파업 비용과 재고평가손실 등으로 약 9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대제철 영업이익 적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동국제강 또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강의 1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약 58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제철의 올 1분기 매출은 5조 5615억원, 영업이익은 2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주요 철강사 중에는 선방 할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5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다른 철강사들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954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업계는 부진을 딛고 2분기 업황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최근 노사 분쟁 이슈를 해소함으로써 생산 정상화와 성수기 수요 회복이 맞물려 실적 회복에 적기라는 관측이 따른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덤프링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의 여건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제강사들도 봉행강 제품 생산을 전면 섯다운하는 등 수급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국 내 철강재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다만 이제는 가격과 수요 모두 바닥을 찍고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나온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삼성전자

### 저소득층 냉방기기 공급

정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선정

삼성전자가 정부가 시행하는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냉방 기기 공급 사업자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1만 8000여 가구에 2025년 형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되는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혜민 기자

## 현대제철

### 'H 코어 솔루션' 과제 공유

현대제철이 국내 건설 분야 산학연 구기관과 건설 공법 및 신기술을 개발 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당진 현대제철 연구원에서 '에이치 코어 솔루션 파트너 킥오프 2025'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하반기 제2회에 이어 코어 솔루션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현대제철은 에이치 코어 솔루션의 추진 배경 및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의 내용,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기관은 과제 수행 계획에 따라 현대제철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단순한 건설 강재 개발을 넘어 환경, 안전, 사회, 건축 방식 등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고객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 LG전자, GM '올해의 공급사' 수상… 전장 기술력 입증

차량 내 고객경험 혁신 성과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 선정

LG전자가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차량 내 고객 경험을 혁신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공급사'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GM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최우수 크리에이티비티 팀'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전장 솔루션을 통해 GM 차량 내 사용자 경험을 새롭게 정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GM은 매년 품질, 구매, 엔지니어링, 제조, 물류 등 전 부문에서 협력사 성과를 종합 평가해 '올해의 공급사'를 선정한다. LG전자는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총 7차례 수상했다.

특히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



GM '제33회 올해의 공급사 시상식'에서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VS북미법인장 오해진 상무(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GM의 크리스틴 토스 전장부품·소프트웨어·커넥티비티 구매 총괄(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LG전자

동차(SDV) 전환 흐름에 맞춰 IVI, 텔레매틱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차량 핵심 부품 전반에 걸쳐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24.4%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공급 안정성 면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LG전자는 GM 북미 지역에서 서비스 부품을 99% 적시 공급하며 지난 달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같은 해 GM코리아 및 브라질향 부품의 적시 공급률은 100%를 달성해 '플래티넘 어워드'도 받은 바 있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SDV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LG 알파웨어'를 중심으로 차량 내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 알파웨어는 ▲차량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이웨어' ▲증강 현실(AR)·混合현실(MR)·인공지능(AI) 기반 몰입형 정보 제공 솔루션 '메타웨어' ▲AI 카메라 기반 안전 운전 지원 솔루션 '비전웨어'로 구성된다.

또한 LG전자는 자사 스마트 TV 운영체계 웹OS(webOS)를 전기차에 최초로 적용하며 차량을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도 구체화하고 있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혁신적인 자동차 솔루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 김민표 대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연내 출시”

〈두산로보틱스〉

타운홀미팅 개최… 조직혁신 주문 휴머노이드 분야 우수인력 조기 확보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사진)가 AI 중심의 기술 혁신에 속도를 높인다.

두산로보틱스는 분당두산타워에서 김민표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재됐던 사업을 '지능형 로봇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한편 휴머노이

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은 협동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간단히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플러그앤플레이 제품이다. AI를 통해 작업 경로와 순서

를 최적화하고 작업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수의 협동로봇간 협업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두산로보틱스는 먼저 제조 분야의 자동화 관련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두산로보틱스는 '실용적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을 위해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21일부터 홈페이지와 다양한 채용 플랫폼을 통해 로봇 R&D,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AI, 소프트웨어, 사용자경험(UX), 품질, 영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기

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하고, 최적의 로봇 연구개발 환경을 보유한 통합 R&D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동로봇 시장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더욱 큰 지능형 로봇 시장의 톱 티어가 되려면 기술 혁신으로 제품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며 "기술 개발·내재화, 전략적 파트너십, 인수·합병(M&A) 기회 확보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뿐만 아니라 실행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혁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하고, 최적의 로봇 연구개발 환경을 보유한 통합 R&D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BYD코리아

## BYD, '아토3' 고객 인도

중국 전기차브랜드 BYD가 한국시장에서 고객 인도에 나선다.

BYD코리아는 국내 첫 승용 모델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고객 인도를 1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토3는 지난 1월 16일 출시됐으나 환경부의 보조금 평가 등 절차가 이달 초 마무리되면서 고객 인도가 다소 지연됐다.

/양성운 기자



BYD코리아가 14일 안양전시장에서 이 전시장 1호 고객과 함께 BYD 아토 3 차량 인도식을 진행하고 있다.

/BYD코리아

# 현대모비스, 전기차 캐즘 넘어서나 열폭주 차단 기술로 안전성 '강화'

핵심 기술로 글로벌 시장서 '주목'  
배터리 발화 시 자동소화 약제분사  
자체개발 특허 출원, 기술력 입증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캐즘(수요정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배터리 열폭주를 막기 위한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셀 발화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해 화재를 즉시 진압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접한 셀로 열이 전이되는 것을 막아 열폭주를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앞선 기술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내열 소재를 활용해 열과 화염으로부터 열폭주를 지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원천 차단하도록 배터리시스템을 설계했다. 유럽과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배터리셀의 최초 발화 후 열폭주를 최소 5분간 지연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선 열전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셀 단위 소화 기능을 갖춘 현대모비스의 배터리시스템(BSA)은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안전기술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BSA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화장치와 배터



현대모비스가 열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배터리시스템 모형에서 분사된 소화약제가 셀 가라 앉으며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리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구성된다.

BMS는 센서가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온도와 전압, 그리고 배터리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판단하게 된다. 발화 시 약제를 분사할 위치를 설정하고 소화장치에 작동을 명령한다.

소프트웨어는 배터리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변화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대모비스의 고신뢰성 판단로직에는 다중안전장치와 이중화된 알고리즘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시스템 내부에는 일반 가정용 소화기 용량 3.3kg(킬로그램)의 5배에

달하는 소화약제를 탑재했다. 이 약제는 냉각과 절연성, 침투성이 뛰어난 물질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배터리케이스와 소화장치 등 총 3종의 국내외 특허도 출원했다. 소화약제용 배관과 강한 압력으로 분사가 가능한 설계기술 등이다.

현대모비스 배터리시스템연구실장 박용준 상무는 “주행거리를 향상시킨 대형 전기차가 등장하며 배터리시스템의 안전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고도화된 배터리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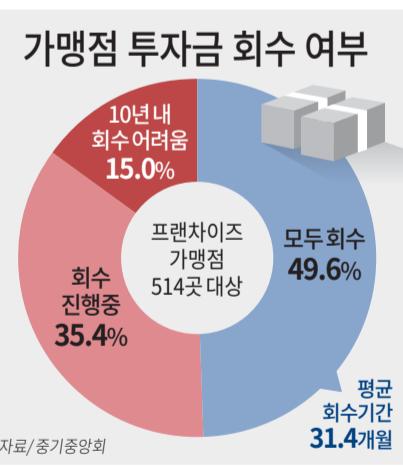
##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 투자금 회수까지 '3년'

중기중앙회, 가맹점 514곳 대상조사  
15% "10년이 지나도 회수 못해"  
69% "인테리어 비용 가장 큰 부담"  
18%,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경험  
제도개선, 정보공개서 공시제 시급

분식, 치킨, 커피 등 외식 프랜차이즈가 맹점 창업시 평균 9591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금 회수까지는 3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10년이 지나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전체의 15%에 달했다. 10곳 중 약 2곳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해 14일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가맹점을 열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최초 가맹 비용' 2011만원, '매장 개설 비용' 7580만원 등 총 9591만원이 들었다. 최초 가맹 비용에는 가맹비, 계약 이행 보증금, 교육비 등이, 매장 개설 비용에는 인테리어 비용, 주방설비, 초도상품비 등이 각각 포함됐다. 특히 공



사, 가구 등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4084만원으로 전체 비용 중 가장 부담이 커졌다. 실제로 응답자의 69.1%가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게다가 36.2%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도 총괄해 결국 사업자는 돈만 내고 결정권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는 창업 이후에도 정액로 열티(43%),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로 열티(34.5%) 형태로 가맹 본부에 계속 가맹금을 내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 가량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는 응답의 경우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회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자가 예상하는 회수 기간은 평균 38.6개월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17.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이 없다'는 82.3%였다.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선 ▲ 할인판매 금지 등 판매가격 구속(37.4%) ▲ 구입강제(33.0%) ▲ 계약변경에 대한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이 많았다.

한편 응답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2669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1000만~20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높았고 '2000만~3000만원 미만'(26.5%), '4000만원 이상'(20.2%)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경영상태에는 62.1%가 만족스러워했다. 그 이유로는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 조건'(27.6%) 순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이외에 '정부와 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도 희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HJ중공업, 美 해군 함정 정비사업 본격화

주한미해군사령관 영도조선소 방문

HJ중공업이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해군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시장 경쟁에 합류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은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준장)을 만나 MRO 사업 등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HJ중공업에 따르면 당시 닐 코프로스키 주한미해군사령관은 참모진과 함께 HJ중공업 조선부문 주 사업장인 영도조선소를 찾아 주요 해군 함정과 건조 시설을 둘러보고 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HJ중공업의 함정 건조 시설과 보안 설비, 고속상륙정(LSF)과 최신 예경비 함등 건조 중인 함정과 특수선을 꼼꼼히 살펴본 코프로스키 사령관은 "HJ중공업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미 함정의 준비태세 향상과 한미 동맹의 증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RO 사업은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활동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주요 우방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분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계의 MRO 사업 참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사전협약이자 자격요건인 함정 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에서 활동하며 한·미 가교역할을 담당했던 '미국통'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인재풀도 확충했다.

국내 최초 함정방위산업체인 HJ중공업은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대형수송함, 고속함, 각종 지원함에 대한 창정비와 성능 개량사업 등의 다양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수행하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 중기부,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뽑는다

중소·중견, 내달 13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견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 기업이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3개 기업을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돋는다"

한진, 중기부 공동물류 수행기관 선정

한진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돋는다. 한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2025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사업' 수행기관으로 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 등을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

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현지 판매 경쟁력을 제고를 돋는 것이 목표다.

한진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 협력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진은 올해 미국과 일본 현지 물류비 상시 할인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한진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원클릭 글로벌'을 이용해 미국, 일본 소비자 대상 해외 배송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미국이 40%, 일본이 70%다.

국내 배송센터까지 한진택배로 꾸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집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진은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원하는 중소기업 셀러들을 위해 주요 글로벌 물류 거점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셀러는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비롯해 미국 및 일본에 위치한 한진의 풀필먼트 사용, 풀필먼트 기반의 현지 배송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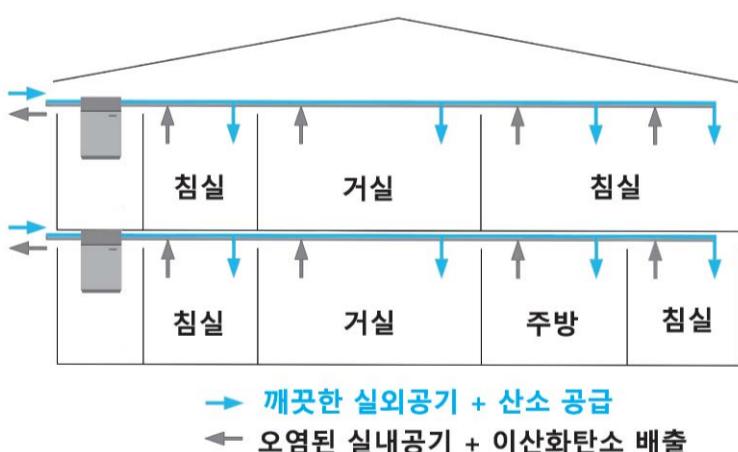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 [특장점]

###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http://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 플랫폼 허위광고·용역중개 피해 기승… 업계는 ‘책임회피’

소비자, 플랫폼 통해 광고 접해 해당 상품 보증한 것으로 인식

O2O 플랫폼, 법의 사각지대 놓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세 법 체계 공백… 기준 명확성 필요

# A씨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카페 앱을 사용하는 도중 '대환대출'에 관한 광고를 보고 여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해당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광고였다. A씨가 심각성을 카카오 고객센터로 신고하자 카카오 측은 광고 확인 유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확인한 모든 광고가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 광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만 했다.

# B씨는 3자 중개 사이트 크몽을 둘러보던 중 깜짝 놀랐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전혀 만나 적이 없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로 둔갑해 있었다. 이에 놀라 다른 곳도 찾아보자 크몽 외에 두동이란 곳에도 포트폴리오가 도용돼 있었다. 다행히 포트폴리오는 삭제할 수 있었지만 B씨는 해당 사실을 바로잡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 받았을 고객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고객센터가 "고객 간 매칭 시스템만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으로 민원을 접수하라"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광고나 인력 중개 등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3자 거래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플랫폼 이미지.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 걸린 광고 등을 통해 상품과 업체를 접하는 소비자들로서는 플랫폼이 해당 상품을 보증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위 사례의 A씨는 다음 카페 앱을 사용하면 도중 대환대출 광고에 전화번호를 남긴 후부터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서민금융지원기관' '정부자금지원' 등의 사칭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전화이긴 하지만,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말에 속을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마케터 김영은(40)씨는 "모든 플랫폼이 광고 전 소재(배너 이미지 등)

에 대한 검토 기간을 두고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 여부를 가리지만 이번 사례는 소재는 법률 기준에 맞추고, 연결 링크는 번호 등을 수집하는 페이지로 연결되게 하면서 문제소지가 커졌다"면서 "연결되는 페이지를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지만 소재 승인 전 확인만 했어도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광고와 관련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SNS 플랫폼을 통해 허위·과장광고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Deepfake) 광고까지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광고를 312건 적발했다.

아예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거래를 손놓고 방관하는 사례도 있다. 용역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인 재능마켓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크몽, 숨고 등도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도용한 사실로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용역 제공을 받은 이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자 오히려 고객센터 측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 물어볼 만큼 대응이 허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경력을 당사자가 자백했는데 플랫폼상에서 패널티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상반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

해 분쟁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플랫폼의 책임회피가 현행 법 체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책임 주체로 광고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검증의 무나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직접 거래하지 않는 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어,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중개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두루고 있어, 비사업자 일반 개인이 판매자로 활동하는 경우 별다른 행정 제재 수단이 없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 U+, '찐심크루' 통해 고객 직접 만난다

고객 목소리, 서비스 개선에 반영 후속 커뮤니케이션까지 관리 나서

LG유플러스가 고객 소통 프로그램 '찐심데이'를 강화해 '찐심크루'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 중심의 푸시(Push) 마케팅을 넘어, 고객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는 풀(Pull) 마케팅 전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행보다.

'찐심데이'는 임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부터 운영돼 있다. 임직원이 만나고 싶은 고객 세그먼트를 선정하면 전담 조직인 '찐심데이 지원센터'가 알맞은 고객을 섭외해 대화를 주선하며, 현장에는 소통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자연스러운 소통을 돋는다.

LG유플러스는 찐심데이를 통해 지난 2년간 500여 명의 임직원이 약 1000명의 고객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



LG유플러스의 '찐심데이'가 올해부터 참여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찐심크루'로 진화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김새라 전무(오른쪽 두 번째)가 '찐심데이'에 참여한 고객들과 기념 촬영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원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의 목소리는 모바일 앱 '당신의 유플러스', AI 애이전트 '익시오(ixi-O)'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에 실제 반영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찐심크루'는 찐심데이에 참여한 고객이 단순 피드백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LG유플러스의 '지원군(Crew)'으로 함께 성장해 나간

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찐심크루는 고객 의견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고객과의 만남 이후 1일 내에 관련 부서에 피드백을 공유하고, 1주일 이내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할지 고객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후속 커뮤니케이션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김서현 기자 seoh@

## 올림플래닛, 'XR 에듀테크' 시장개척 박차

〈학장현실〉

모두의코딩 협동조합과 '맞손'

몰입형 학장 현실(XR) 기술 기업인 올림플래닛이 '에듀 테크' 시장 개척에 나선다. XR 콘텐츠 대중화를 목표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몰입형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림플래닛은 모두의코딩 협동조합과 XR 교육 과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XR이 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모두의코딩

협동조합은 강원도 강릉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디지털 교육 특화 협동조합이다.

올림플래닛은 모두의코딩에 자사의 XR 교육 전용 소프트웨어 '엑스루 에듀(XROO Edu)'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강사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의코딩은 엑스루 에듀 라이선스를 활용해 강원도 내 초·중·고교,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XR 교육을 전개한다.

/김현정 기자 hjk1@

## 딥파인, XR공간 정보구축 솔루션 소개

〈학장현실〉

오는 24일부터 '2025 월드 IT 쇼' 체험형 전시 통해 콘텐츠 확인

학장 현실(XR) 공간 컴퓨팅 플랫폼 기업인 딥파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월드 IT 쇼(WIS 2025)'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실 공간을 3D로 변환하는 XR 공간 정보 구축 솔루션 'DSC'와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하는 원격 협업 솔루션 'DAO'를 운영하는 딥파인은 공간 컴퓨팅 기술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딥파인은 이번 행사에서 CES 혁신 상 수상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DSC'를 선보인다. 고가의 라이다 장비나 전문

인력 없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솔루션의 특징이다.

물류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딥파인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참관객들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물류 센터 내부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고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연계해 창고 내 제품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 작업자에게 최적의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그간 딥파인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종합물류센터에서 기술 실증을 진행해 왔으며, 연내 해당 기술 공급을 대할 계획이다.

건설·전시·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법도 소개한다. /김현정 기자 hjk1@

## 네이버 지도 앱, 外人에 '핫플레이스' 소개

'비로컬' 캠페인 진행

네이버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네이버 지도 앱을 활용해 한국의 인기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비로컬(BE LOCA L)'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지도 앱의 언어 설정이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로 설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비로컬' 캠페인은 명동, 성수, 이태원, 한남동 등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M

Z세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카페, 패션숍, 복합문화공간 등을 소개한다. 외국인 이용자는 네이버 지도 내 '비로컬' 탭을 통해 2030 한국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저장한 장소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캠페인 기간 중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무신사, SK텔레콤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5월부터는 파트너 매장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 굿즈도 증정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외환회계 오류에 매출 과대계상… “손실 없지만 신뢰 타격”

## 금감원, 증권사 점검나서

한국투자·신한투자, 회계 오류에 사업보고서 정정 등 신뢰도 하락 평가·투자유치 등 영향 미칠지도

잇따른 회계 오류로 증권업계의 내부 통제와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연이어 외화거래이익 산출 오류로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정정하면서 내부통제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환 손익의 상계 처리 관련 회계 오류가 반복되자, 최근 증권사들에 유선으로 관련 질의를 진행하며 점검에 나섰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부서에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자료 제출이나 추가 설명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환 회계 오류가 드러난 신한투자증권(왼쪽)과 한국투자증권(오른쪽).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외환 손익 상계 처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중앙은 증권사 대상 조사 상징 이미지. /각 사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외환 관련 회계 오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관련 점검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내부 외환 거래 처리 오류로 약 5조 7000억원의 매출이 과대 계상된 사실이 드러나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외환거래이익은 기존 14조 6117억원에서 8조 8784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금감원의 회계심사가 진행 중이며, 14일 기준 감리 절차까지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신한투자증권도 최근 지난해 외환 거

래이익이 약 4500억원 줄어든 정정 공

시를 통해 상계 오류를 인정했으며,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 척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외환 손익 상계 착오를 확인해 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 기준상 제외해야 할 내부 거래 손익을 매출과 비용에 모두 반영하면서 수치가 과대 계상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오류는 증권사 외환 거래 구조의 복잡성과 회계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부서 간 외환 거래는 실질 손익이 아님에도, 일부 시스템이 이를 외부 거래처럼 인식해 수익·비용으로 계상하는 구조다. 특히 외환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종액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조정 없이 기표되면 매출이 과대 계상되기 쉽다. 업계에서는 내부 통제 미흡과 회계조정 기능의 누락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오류가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회계 오류로 인한 정정 공시는 기업 신뢰도와 향후 시장 평가, 투자 유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계상돼 매출이 부풀려지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투자자와 시장은 매출 규모를 기업 활동의 주요 지표로 삼는 만큼, 실제 이익에 영향이 없다 해도 정보 외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거래 손익의 상계 오류는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정정 공시 자체만으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회계처리가 기준에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불법공매도 저지르면 임원·재임 5년 제한

### 금융위, 23일부터 개정안 시행 의심계좌 최대 1년간 지급 정지 “주요국 사례 참조해 수단 도입”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사람은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과 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벌금형 금액을 상향했지만 재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비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는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한다.

단, 금융투자 상품 중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균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자는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

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거나 불공정 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감면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금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6개월+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는 재벌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전기차 넘어 트램·수소차까지 미래교통 주도권 확보 속도전

### 코스닥 기업탐방

#### 피라인모터스



경기도 화성 KD 공장 모습. /피라인모터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자리한 피라인모터스 본사. 전기버스 도면과 배터리 설계 이미지, 자체 플랫폼 ‘K-차대’ 구조도 등이 걸린 회의실은 마치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을 연상케 한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피라인모터스는 중대형 전기버스를 비롯한 친환경 상용차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화성에 KD(반제품 조립)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개발부터 배터리, 충전 인프라,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 화성에 반제품 조립 공장 보유, 충전인프라·관제시스템 등 자체기술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버스 출시, 레일 없는 ‘무궤도 트램’ 사업 주목

피라인모터스는 최근 몇 년간 ‘K-PURS’, ‘HYPERS’ 브랜드를 중심으로 11m급 고상버스부터 7m급 통학용 소형버스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상용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대표 모델인 광역용 PRIME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61km에 달해 동급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점도 피라인모터스의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충전기와 통합 관제 시스템(TMS)을 통해 차량의 실시간 상태, 배터리 이력, 충전 데이터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관제 시스템은 충전기 연동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형 운송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시스템과 쉽게 통합된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높다.

배터리는 미국 마이크로배스트(Microvast) 제품을 채택해 내구성과 효율을

모두 잡았다. 8100회 이상의 충·방전을 반복해도 성능 저하가 20% 이내로 억제되는 고성능 배터리로, 기존 상용차 대비 약 4배 이상의 수명을 제공한다.

피라인모터스가 최근 주목하는 분야는 ‘무궤도 트램(TRT)’ 사업이다. 레일 없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신형 교통 수단은 낮은 건설비와 짧은 구축 기간으로 기존 경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시범 노선 사업에 피라인모터스는 차량과 충전 인프라 공급 후보로 참여 중이다. 현재 국내 30여 개 지자체가 TRT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도 크다.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차량을 조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 상용차의 핵심 기술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기술 기업”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주도권을 피라인모터스가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버스를 시작으로 충전기, 플랫폼, 무궤도 트램, 수소차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는 피라인모터스는 미래 교통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량 한 대에 담긴 기술과 신념이 도시를 잇고, 교통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피라인모터스의 행보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대환 기자 kdh@

## 디폴트옵션 펀드 설정액 업계 첫 1조 돌파

### 미래에셋운용, 전체 시장의 35% 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기준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O클래스) 총 설정액이 1조 3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 1조원 이상은 국내 운용사中最초이자, 설정액 상위 2~4위 운용사의 총 규모를 합한 것보다 큰 규모”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도입 이후 현재 국내 디폴트옵션 시장은 총 2조 8,471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가 35.26%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제공하며

연금 시장 1위 운용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디폴트옵션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전략배분TDF 2035’다. 14일 기준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 설정액은 2161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 시리즈는 투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하며 시장 국면별로 유연하게 미래에셋의 대표 상품에 분산투자한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한 장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의 2022년 12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O클래스 기준)은 18.41%다.

/허정윤 기자

## 한국투자 ALP 원우회 사랑의 도시락 봉사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ALP(Advanced Leader’s Program for the next CEO)’ 원우회가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LP는 한국투자증권이 영업점 우수고객 자녀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소양 및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LP 수료생들로 구성된 원우회는 지난 12일 따뜻한 도시락 260인분을 직접 만들어 서울 영등포 인근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한국투자 ALP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료생을 배출해왔다.

/허정윤 기자

# 캐나다 최대 통신사에 7억달러 지원 무보, 삼성제품 수출에 금융 뒷받침

북미시장 판로 확대 기대감 커져  
디바이스 파이낸싱 전략 '주목'  
자본재 중심서 소비재로 확대  
“수출기업 시장 개척, 적극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인 벨 캐나다(Bell Canada, 이하 벨)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7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벨은 약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캐나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 무보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국내 통신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주요 통신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4G/5G 네트워크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북미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한



무역보험공사 사옥. /무역보험공사

바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 유로, 3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었다.

무보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특히 최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

기 수출금융 제공 시, 기존 자본재 중심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플랜트 발주처에 우리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사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전금융한도 발주처를 기준 공공 부문에서 우량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지사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4월 위성던 지사를 설립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정치·경제 동향 파악에 나서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캐나다 통신사 금융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허위고지 ‘철퇴’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과징금 3600만원  
확률 숨긴 포인트 적립제 방식 밝혀져  
소비자 유인해 30억 판매… 기만행위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상위 모험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공경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

설된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구슬 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술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게임 운영사인 코그는 2022년 8월 3일 ~ 2023년 2월 27일 까지 해당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이른바 ‘포인트 적립제’ 구조였다. 또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은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

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술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 코그가 확률 정보를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전, 준법경영실로 청렴업무 이관

전 직원 자율서약으로 윤리 실천

한국전력이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고 전사적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내실화한다.

한전은 14일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

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경영방침을 말한다.

한전은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에서 수행하던 청렴

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 한전 본사에서 청렴 윤리경영 실천서약식을 시행,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한데 이어,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윤리 자율실천 서약’을 이날부터 23일 까지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세종=한용수 기자

## 중소 전자제품 생산자도 재활용 책임진다

환경부, EPR 제도 내년부터 확대 적용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중소형 등 모든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 생산자만 이 같은 자원순환 동참 의무를지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제도는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EPR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재활용 할 수 있게 돼, 철·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을 연간 약 7만 60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자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 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송미령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총력”

### 농식품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위한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했다.

/농식품부

6737억 원을 기록하며 조기 안착한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유통 효율화 사례 발굴 등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핵심 거래 주체별 유통비용 절감 ▲유통경로 효율화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우수사례 거래 분석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후생 개선 등 성과 확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도매시장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한기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 5일간 전사적 점검, 체험 진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14일~18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마련돼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으로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 관리감독자 39명은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시작한다. 또 대학 내 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 훈련과 함께 재난대응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www.dseshop.co.kr


**동성제약**

# “샴푸 3분만에 염색 끝”

힘든 염색은 이제 그만, 간편하게 염색 끝 -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샴푸하듯 간편하게, 초스피드 3분 염색

**세븐에이트 블랙샴푸**



3분 염색으로 빠르게 30분 걸리는 길고 지루한 염색시간, 단 3분이면 OK



유해성분 없는 건강한 새치케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순한 염색,



피부자극 걱정없이 염색후에도 보들보들한 머릿결 유지



■ 특별 할인판매 · 색상 : 내츄럴블랙, 다크브라운(선택) · 제품 구성 : 26회 사용분 + 전용장갑 2개 · 판매가 : ₩19,933원 X 3(3개월 카드무이자)

상담 | 구입 문의 **080·854·0082**

# 부울경 시·도지사, 대선 공약반영 협력사업 21개 구성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이중분권 개헌에 의견일치 확인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약 반영을 건의할 협력사업을 확정·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장은 부울경의 순번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맡았다.

이번 대선 공약 반영 건의 협력 사업은 21개로 구성됐으며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철도·도로망 구축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울산~부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장은 부울경의 순번에 따라 경남도지사가 맡았다. /부산시

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창업산업선 구축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 구축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간 간선철도 구축 ▲KTX 경부고속선 울산 지선 신설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울산~부산~창원~진주 철도 인프라 도입 운영 ▲김해~울산 고속도로 신설 ▲광역 간 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이다.

지역 산업과 관련된 사업, 관광 산업들도 포함됐다.

내용은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초광역권 도심 융합 특구 지정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체 실증 인프라 사업 ▲수소연료 기반 커뮤터기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동남권 관광 벨트조성 공동 대응체계 구축 ▲국가

녹조 대응 종합센터 신설 등이다.

세 시도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개헌에 대한 일치된 의견도 확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선의 방법은 개헌안이 이번 대선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과 방법을 약속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가 이뤄지고 실시 시기는 사회·정치적 합의를 통해 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치가 극단의 대치를 중단하고 국민을 향해 고개 숙일 때”라며 “부울경 시도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 지역 이모저모

### 양산시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1위’

경남 양산시는 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도가 매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주요 정책과 도 역점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도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 김해시

#### 가야문화축제에 中·印·日 참석

김해시는 2025 가야문화축제에 국제 우호 도시인 중국 다롄시 대표단을 비롯해 주한인 도대사관,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일본 무나카타시 시민대표 등 26명의 해외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롄시는 지난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으로 처음 인연을 맺어 같은 해 11월 국제우호도시 협약에 이어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다롄시 공연단이 가야문화축제 개막식 무대에 올라 중국 전통 경극과 무용을 선보였다.

자매도시 아요디아시와 우호도시 우타르 프라데시주를 대표하는 주한인도대사의 방문과 함께 인도 전통무용인 ‘까탁(Kathak)’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 전남도, 교통안전시설에 370억 투입

교통약자 등 위한 안전시설 확충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집중’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올해 37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교통약자(노인·어린이),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첨단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중이 높은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 안전시설을 집중 확충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인보호 구역 1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03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방지를 위한 차선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



전남도가 올해 370억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19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4개소, 마을진입로과 속방지시설 54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10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10개소와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3개소 등 최첨단 안전시설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총 136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5개소를 비, 회전교차로 10개소, 과속단속카메라 81개소, 시야 확보 표지판 230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 산불피해 지역 회복·치유 중심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올해 예정되었던 ‘영양산나물축제’를 대신해 지역의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특별 행사,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영양군청 앞마당 및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공감과 치유 중심의 특별 행사로 기획하였다.

행사장에는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주제관과 함께, 작은 정성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산불피해 도금 부스가 운영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깨 나아가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영양을 대표하는 봄 산나물을 주제로 한 ‘산나물전 거리’에서는 싱그러운 향과 맛을 자랑하는 다채로운 산나물 요리가 펼쳐지며,

산나물 판매를 돋기 위한 ‘고기꾼터’에서는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 체험존이 운영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풍성한 먹거리와 현장 체험, 지역 상인의 직거래 판매 부스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행사의 의미를 새기고자 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최다실적

최대규모 참여… 상담액, 3420억 달성

대구시는 지난 8~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참가 기관 수 및 구매·수출·투자 상담액 등에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유일의 원스톱 종합 비즈니스 행사로 판로·투자·채용 등 기업들의 고충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올해는 총전 최대 규모였던 640개보다 더 늘어난 681개 기업·기관이 참가했으며 상담액도 전년도 2999억 원보다 증가한 3420억 원을 달성했다.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는 삼성, SK 등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122개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203개사와 786건의 기술·구매상담을



지난 8~9일 대구엑스코에서 ‘2025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열린 모습.

통해 750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8개국 22개사 해외바이어 및 26개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138개사와 346건의 1대 1 미팅을 진행해 총 1767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665만 달러의 계약률을 달성했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에서는 23개 투자사와 32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2423억 원의 투자상담이 이뤄졌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 부산시, ‘양자 산학협력지구’ 지정 박차

부산대 ‘맞손’… 3년간 약 69억 투입

부산시는 14일 양자과학 기술센터에서 부산대학교와 ‘양자과학 기술 연구·산업 육성 및 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대학교 물리관에 있는 양자과학 기술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대학교는 지난해 양자과학 기술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10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부산대학교는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부

산이 ‘국가양자산학협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 협약식과 함께 양자과학 기술센터 현판식, 중장기 사업 발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진행되었는데, 시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된 ‘부산시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비약적 성장, 양자로 도약하는 부산’을 비전으로 하며 ‘양자기술 연구·산업 육성 특화도시 부산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 2025~2027년 3년간 시비 약 69억 원이 투입되며 ‘부산시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경북교육청

#### 중등 수업전문가 239명 선정

경북교육청은 올해 중등 수업전문가 239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업전문가는 2015년부터 경북교육청이 운영해온 교사 전문성 인증 제도다.

수업연구교사와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의 3단계로 돼 있으며, 매년 3월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수업전문가는 연중 실제 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주요 활동은 연구수업 공개, 수업 컨설팅, 60시간 이상 수업 관련 연수 참여,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공유, 학습공동체 활동 등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 패키지 바꾸고 축구단 협업… 여름 성수기 대비 ‘이상無’

## 식음료업계, 여름 마케팅

식음료업계가 빠른 여름 대비에 나섰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23.4~24.0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전문가들 또한 4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시작돼 11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업계는 수요 선점을 위한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다.

### ◆ 맥주 성수기 앞두고 재정비

여름은 전통적으로 맥주 성수기로 여겨진다. 오비맥주는 대표 브랜드 ‘카스’의 전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VBI 패키지’는 청량함과 신선함을 강조한 직선형 방사 디자인으로 시각적 임팩트를 높였다.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카스 레몬 스퀴즈’, ‘카스 0.0’ 등 전 라인업에 적용됐다.

이와 함께 2분기 중리뉴얼 기념 컬래버 굿즈 출시, 팝업스토어 운영, 음악 페스티벌 및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한다. 현재 성수동 ‘엠엔성수’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카스 월드’는 ‘얼음 동굴’, ‘미네랄 스프링’ 등 공간 곳곳에 신선함을 극대화한 요소를 배치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한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6주년을 맞은 ‘테라’를 앞세워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 신규 캠페인 ‘테라 점프 업 2025!’를 통해 리뉴얼 패키지, TV 광고, 포스터, 컬래버 활동 등을 선보이며 브랜드를 재



켈리가 라마다호텔과 협업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크러시’는 FC서울과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롯데칠성음료

### 오비맥주 ‘카스’ 패키지 리뉴얼 2분기 굿즈 출시·팝업 운영키로

### 하이트진로 ‘테라’ 모델에 지창욱 켈리-CGV, 프로야구 패키지 선봬 팔도 ‘비빔면 제로슈거’ 선보여 농심 ‘배홍동 칼빔면’ 긍정 반응 삼양식품 ‘맵탱 비빔면 김치맛’

점화한다. 모델로는 배우 지창욱을 발탁했다. 또한 야구장 마케팅, 전주 가맥축제, 홍천강 별빛음악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밀착 프로모션을 계획 중이다.

프리미엄 라거 ‘켈리’는 맛에 민감한 소비자를 겨냥해 CGV와의 협업을 진행 중이며, 2025 프로야구 시즌에 맞춰 CGV에서 중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크러시’를 앞세워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1.6L 페트병을 리뉴얼하고, 크

리스탈 컷팅룩과 하프라벨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외관을 완성했다. 저비중 라벨을 도입해 분리수거와 재활용 편의성도 높였다.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프로축구단 ‘FC 서울’과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 2년 연속 공식 맥주로 선정됐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스카이펍 등에서 크러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며, 경기장 앞 광장에는 대형 라운지와 응원존도 운영한다. 6월에는 ‘크러시 데이’를 통해 FC 서울 선수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리뉴얼한 ‘클라우드’와 무알콜 신제품 ‘클라우드 논알콜릭’에 대한 마케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 ◆라면업계, 비빔면 제품 라인업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비빔면 시장 규모는 약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57억 원에서

2023년 18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연평균 약 17%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팔도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은 팔도비

빔면 제로슈거’를 선보였다. 알룰로스를 사용해 무당류 기준을 충족했으며, 전분 함량을 높여 면발의 탄력을 강화했다.

농심은 ‘배홍동’ 브랜드 홍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칼국수 면발을 접목한 ‘배홍동 칼빔면’을 출시, 소셜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삼양식품은 매운맛을 강조한 ‘맵탱’ 컬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을 출시했다. 큐베브 후추와 특제 고추장 소스를 활용해 독특한 풍미를 선보이며, 김치와 야채 후레이크로 풍부한 식감을 더했다.

오후기는 ‘진비빔면’의 새로운 모델로 방송인 최화정을 기용했다. 신규 광고에서는 ‘한 봉지는 부족하고 두 봉지는 많다’는 비빔면의 딜레마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20% 증량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 ◆편의점 업계, 아이스커피 확보하며 하절기 준비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아이스커피 매출도 함께 급

증하는 추세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파우치 음료와 즉석커피 등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월 대비 101% 증가했으며, 얼음 컵은 80%, 아이스크림은 40% 각각 매출이 늘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4월 자체 브랜드 ‘세븐카페’ 매출이 전월 대비 40%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전월보다 무려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25의 PB ‘카페25’ 아이스 메뉴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61% 늘었다.

이같은 수요에 맞춰 편의점들은 자체 브랜드 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CU는 ‘겟(get) 커피’와 전용 샌드위치를 함께 구매하면 1500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며, GS25는 ‘1400페트커피’라는 초가성비 제품을 선보였다. 이마트24도 지난달 초저가 PB 상품인 ‘상상의 끝 1000블랙커피’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일찍 더위가 찾아오고, 여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여름철 음료 및 간 편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이 하절기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제품 리뉴얼과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팔도비빔면  
제로슈거  
/팔도

## “달리기 열풍 잡아라”… 유통가, 러닝 마케팅

롯데온, 지난달 러닝화 매출 90%↑  
온라인 ‘러닝 스테이션’ 리뉴얼 나서  
롯데百 ‘디스턴스’ 팝업스토어 운영  
노스페이스 ‘러닝클럽’ 행사 열어

따뜻한 날씨로 야외 활동 수요가 늘면서, 유통업계가 러닝족 겨냥 마케팅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러닝 관련 상품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맞춰 온·오프라인 러닝 전용관을 강화하고, 이색 행사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14일 롯데쇼핑 e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에 따르면, 지난 3월 러닝화 제품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러닝 열풍이 올해는 더 확대, 지속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러닝은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헬시 플레이저’ 트렌드 속에, 2030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높은 운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러닝 트렌드가 4050세대까지 확산되며 러닝 시장 전반이 성장세에 들어섰다. 롯데온의 분석에 따르면, 4050세대의 러닝화 및 러닝코어룩 매출 비중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5%, 130% 늘었다. 러닝 코어룩은 러닝복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패션 스타일을 뜻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활용하는 러닝코어 트렌드가 확산



롯데온 ‘러닝 스테이션’ 포스터. /롯데온

되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유아동 러닝화 매출도 함께 2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롯데온은 온라인 러닝 전문관 ‘러닝 스테이션’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형태로 리뉴얼한다. 호카, 씨코니, 나이키, 아디다스 등 러닝 전문 브랜드 상품을 확대하고, 입문·중급·전문가용 등 단계별 러닝화를 추천하는 큐레이션을 강화한다는 게 회사 층 설명이다. 아울러, 키즈 러닝 제품군도 함께 보강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롯데백화점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 러닝족 잡기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월드몰 지하 1층에서 ‘디스턴스’ 팝업스토어를 운영, 글로벌 러닝 브랜드 6개를 선보인다.

이색 행사를 통해 고객층 확대에 나서는 곳도 있다. 영원아웃도어의 글로

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노스페이스 러닝클럽’ 첫 번째 행사를 통해 러닝족 접점 확대에 나섰다. 국내 마라톤 선수인 김지섭 선수, 심재덕 선수, 남극대륙 단독 횡단에 성공한 김영미 대장과 함께 6주 동안 참가자들에게 트레일 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은 뉴발란스와 함께 ‘뷰티풀 무브’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러닝족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달리기를 즐기는 워킹맘의 인터뷰를 공개하고, 여성 러너를 위한 단독 기획전도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업계는 국내 러닝 인구 1000만 명을 넘어서 것으로 추정 한다”면서 “러닝이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러너들을 위한 행사나 전문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s4187@

## 종가, 日 시부야서 ‘김치 팝업’ 연다

### 29일부터 일주일간 운영

글로벌 No.1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가 도쿄 시내 한복판에 ‘김치 팝업’을 연다. 대상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 까지도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크레인즈 6142’에서 일주일간 ‘김치 블라스트 도쿄 2025’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종가는 전개하는 김치 블라스트 팝업은 김치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서 서울, 런던, 부산에 이어 올해는 도쿄에서 개최된다. 도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시부야 캐스트리트에

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월 황금연휴 기간을 포함하는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김치 블라스트 도쿄 2025’의 주제는 ‘삶에 대한 깊은 탐구(Deep Dive into Life)’다.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의 김치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결합해 일상에 깊숙히 파고드는 김치 경험을 제안한다. 대상은 이번 팝업을 통해 종가의 우수한 가치를 일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브랜드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 브랜드 인지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 CJ제일제당 ‘해찬들 웰니스 장류’ 인기

### 나트륨 줄여… 누적판매량 100만개

건강 트렌드에 맞춘 CJ제일제당의 ‘해찬들 웰니스(Wellness) 장류’ 제품들이 소비자 호평 속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나트륨을 줄인 해찬들 웰니스 장류 제품들이 2023년 12월 출시 후 올해 3월까지 누적판매량 100만개(500g/1개 환산 기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찬들 웰니스 장류는 ‘나트륨을 줄인 국산참쌀 고추장’, ‘나트륨을 줄인 된장 맛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 제약업계, 신약개발 자회사 성장 가속화… 수익성 향상 기대

**이뮨온시아** 중국에 기술수출 성과  
**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개발  
일동제약 신약 자회사 협력 강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외형 확장, 안정적인 수익성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자회사 이뮨온시아는 '국산 1호 면역항암제'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뮨온시아는 지난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 소伦토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기업으로, 유한양행은 이뮨온시아 지분 67%를 보유중이다.

지금까지 이뮨온시아는 체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와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왔다. 또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추진해 신약 후보물질을 상업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한다.

실제로 이뮨온시아는 2021년 중국 3D메디슨에 'IMC-002'의 중국내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약 5400억원 규모로 기



유한양행 본사 전경. /유한양행

술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성사 시킨 전체 기술수출 28건 중 6위에 오른 사례이기도 하다.

향후 이뮨온시아는 IMC-002 마일 스톤만으로 오는 2025년 27억원, 2026년 53억원, 2027년 57억원 등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뮨온시아 연간 매출도 2025년 28억 원, 2026년 224억원, 2027년 250억원, 2028년 999억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뮨온시아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다.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3000원~3600원으로, 최저가액 기준으로 총 274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제일약품의 연구개발자회사 온코닉



자큐보정. /제일약품

테라퓨틱스의 경우, 신약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성까지 입증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10월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정'을 발매한 후 같은 해 12월 코스닥 시장으로 진출했다. 올해는 2025년 매출 추정치를 기준 16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약 54% 상향 조정했다. 자큐보정의 첫 연간 판매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영업손실은 기준 34억원에서 54억원으로 적자 폭이 31% 커졌다. 매출 상승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요인으로는 후속 파이프라인이 꼽혔다.

실제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의 뒤를 이을 기업 대표 제품으로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카라제 이중저

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카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기존 적응증인 췌장암, 자궁내막암에서 신규 적응증인 위암, 위식도접합부암, 유방암 등으로 연구개발 범위가 확장됐다.

일동제약그룹도 연구개발 자회사와 함께 그룹 경쟁력을 높인다. 일동제약그룹은 신약개발 자회사 아이리드비엠에스와 유노비아, 신약 전문 특수회사 아이디언스 등을 보유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이리드비엠에스는 저분자 화합물에 중점을 둔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아이디언스는 항암 영역에 특화됐다. 유노비아는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는 다양한 합성 신약에 집중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꾸준히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마다 캐시카우를 확보하려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한다"며 "신사업이 의약품과 신약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상적이겠지만, 신약개발은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장기적인 비전과 재무 건전성 간의 균형 있는 전략을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아모레퍼시픽

"초음파로 스킨케어 완성"

젬 소노 테라피 릴리프 리뉴얼

아모레퍼시픽은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에서 저자극 부스팅 디바이스 '젬 소노 테라피 릴리프'를 재단장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젬 소노 테라피 릴리프'는 스킨케어 흡수에 특화된 제품이다. 메이크온 독자 기술인 '인피니티 소노 테크'를 탑재해 초당 300만 회 진동의 초음파가 화장품 유효 성분이 피부 속 깊이 흡수되도록 돋는다.

특히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미세 초음파와 젠스톤이 부드럽게 작용해 디바이스 입문자에게 적합한 '부스팅 모드'와 초음파와 리듬감 있는 진동이 스킨케어 흡수를 촉진하는 '마사지 모드'를 구현한다.

'릴랙스 모드'는 초음파와 진동, 흡수에 이상적인 42도 온열 기능이 더해진 것으로, 인공피부 적용 시험 결과에서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투과도가 600%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높은 흡수력부터 피부 피로 완화, 얼굴 부기 제거까지 다양한 홈뷰티 기능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美서 유플라이마 상호교환성 획득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FDA 승인  
상호교환성 인정 시장 접근성 확대

셀트리온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와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 변경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호교환성 제도는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해 처방할 수 있는 제도로, 교차처방 과정에서 의료 진과 환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미



국의료 시스템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약사의 재량 또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승인은 글로벌 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셀트리온은 중증도 내지 중증 판상형 건선 환자 367명을 대상으로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 안전성의 유사성, 유효성 등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유플라이마는 최초의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20mg/0.2ml, 40mg/0.4ml, 80mg/0.8ml 총 3가지 용량으로

고농도 제품군을 구축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 공급한다.

유럽에서는 주요 국가별 맞춤형 입찰 전략을 펼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중가격 정책을 도입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 유통망을 공략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플라이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최대 아달리무맙 시장인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접근성을 높여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닥터그루트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제품군 4종. /LG생활건강

##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민감 두피건강 관리"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출시

LG생활건강은 더마 전문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에서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제품군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유분 과다, 비듬, 각질, 건조에 의한 가려움, 냄새 등 지루성 두피로 인한 5가지 복합 문제를 관리해 준다. 닥터그루트는 해당 제품에 특히 기술 '알.이.디 릴리프 테크놀러지'를 적용했고, 인체적용시험에서 지루성 두피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 효능을 확인했다.

'클리니컬 릴리프 지루성 두피용' 샴푸 1회 사용만으로 ▲유분 과다 ▲가려움 ▲두피 장벽 ▲수분 등의 요소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샴푸 사용 중 단 2주 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됐고, 샴푸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두피 장벽이 강화됐다.

/이청하 기자

# 정관장, 신라면세점과 전기식 시장 확장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 등 협업

정관장이 신라면세점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장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마케팅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승규 KGC인삼공사 마케팅본부장과 김준환 호텔신라 TR부문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장충동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신제품 공동 기획 및 출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마케팅 ▲해외 신규 채널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3대 허브공항인 인천, 싱가포르, 홍콩 국제공항에 동시에 입점해 국내외 1300개 이상의 다채로운 브랜드를 통해 최신 쇼핑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다.

정관장은 신라면세점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로 출국하는 국내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흥삼의 우수성을 알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리바로젯 전환요법 유효성·안전성 입증

JW중외제약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환자의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지난 2021년 10월 JW중외제약이 출시한 이상지질혈증 2제 복합제다. 스타틴 계열 제제 피타바스티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다. 리바로젯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54% 줄이는 기전을 갖췄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동매

경화증, 각종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져 고지혈증 진단 기준이 된다.

서울보라매병원 심혈관센터 김상현 교수팀은 이상지질혈증 환자 7197명을 대상으로 '리바로젯' 전환 후 48주간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팀은 7197명 중 임상 초기 등록 환자 2221명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 치료제를 아토르바스티틴, 로수바스티틴 등 6개 스타틴 단일제에서 '리바로젯'으로 전환한 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주, 24주, 48주 시점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대한항공·아시아나 임직원, 1사 1촌 마을 봉사활동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1사 1촌 자매결연을 한 강원 홍천군 명동리 마을에서 봄맞이 농가 일손 돋기와 의료 지원 봉사 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4년부터 이 마을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했다.

/대한항공



hy-서울시, '기부하는 건강계단' 업무협약 체결  
hy가 서울시와 '기부하는 건강계단(이하 건강계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y는 건강계단 이용자당 10원을 적립해 연 최대 2000만원을 모금한다. 이정열 hy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원쪽)과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y



KB국민은행, '매현시민의숲' 환경정비 봉사활동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서울시 서초구 매현시민의숲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스타프렌즈 정원에서 봄 맞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KB국민은행 임직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낙엽 정리, 이끼 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한솔제지-전주시, 왕궁면 일대에 닥나무 식재  
한솔제지가 전주시와 함께 전통한지 원료인 닥나무 식재 행사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서 개최했다. 14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전통한지 보존 및 한지 산업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솔그룹 임직원과 전주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총 2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한솔제지

## 신세계백화점 '위드 신세계 희망장학금' 신설

신세계백화점이 '지역 상생·인재 양성·장기 지원'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위드 신세계 희망장학금'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드 신세계 희망장학금은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신세계백화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먼저 광주·대구·대전·부산 4개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생 중 성적 우수자와 학업 잠재력을 지닌 12명을 선발한다. 이들에게 3년간 연 300만원씩 총 9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된 교재·교구 지원, 재능 계발 강의 연계, 대회 참가 등을 돋는다.

/안재선 기자 wots4187@

# LG전자, '재미 봄업' 캠페인… Z세대 등 고객 접점 확대

## 걸그룹 엔믹스 화보·쇼츠 공개 “재미” 플랫폼 확대해 나갈 것

LG전자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엔믹스를 앞세워 Z세대를 겨냥한 '재미(jammy) 봄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LG전자는 14일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엔믹스의 스쿨룩 콘셉트 화보와 쇼츠(1분 내외의 짧은 영상) 5종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이어지며, 포털 사이트와 SNS 등 디지털 광고는 물론 흥대, 신촌, 성수, 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에서 옥외광고로도 만나 볼 수 있다.



G전자가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엔믹스를 앞세워 Z세대를 겨냥한 '재미(jammy) 봄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 이미지는 '재미 봄업 캠페인'의 엔믹스 화보.

'테크컬쳐', '낭만컬처', '리빙컬처' 콘셉트의 스타일링 화보뿐 아니라 멤버별 미공개 컷과 비하인드 영상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

달부터는 스탠바이미,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인기 제품 중심의 '머스트 앤 베스트(M&B)' 화보도 추가된다.

'재미'는 전자제품 리뷰와 사용 팁을 공유하는 LG전자의 브랜드 커뮤니티로, 제품 리뷰나 팁, 인테리어 취향 등을 공유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굿즈 응모, 콘텐츠 다운로드, 체험단 모집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캠페인 기간에는 엔믹스 포토 프레임, 한정 굿즈 등이 걸린 이벤트도 진행된다.

LG전자 관계자는 "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브랜드 모델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를 담은 '재미'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하나금융, 청년 창업 활성화 앞장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모집 우수창업팀, 업종·유형별 특화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광운대학교와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룹의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각지의 거점대학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전형 전문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4기 프로그램은 기존 대비 창업 심화과정과 우수 창업팀 집중 커리큘럼 과정을 고도화한다.

특히, 창업 지역 내 주요 문제해결 사례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한다.

또한, 우수 창업팀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화 지원으로 창업 성과 극대화를 도모한다. 업종별 선배 창업가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실사례에 기반한 코칭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



하나금융그룹은 광운대학교와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천장호 광운대학교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炬光은 본사 및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세종, 서울 등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총 4800만원을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 1인당 후원자인 포스코炬光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2배인 10만원을 추가 지원

## 포스코炬光, '디딤씨앗통장' 후원

###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

포스코炬光이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통해 올해도 지역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나선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의 사회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포스코炬光은 본사 및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세종, 서울 등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총 4800만원을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 1인당 후원자인 포스코炬光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액의 2배인 10만원을 추가 지원

해 1년간 통장에 180만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취업 훈련비,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포스코炬光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지속 중이다. 지난해에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포스코炬光은 내년까지 누적 2억 8500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포스코炬光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푸른꿈 환경캠프'와 '미래세대 축구교실',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돋는 '상생형 죽로 기능인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표그룹, '셀프도서관·문화창고' 눈길

### '소통·창의' 조직문화 확산

삼표그룹이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4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본사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비즈니스센터에 셀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QR을 통해 손쉽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셀프도서관에는 CEO가 서재에 두고 읽을 만큼 의미가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CEO의 서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룹 및 각 계열사 대표가 추천하는 책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임직원들에게 콘서트, 연극 등 공연 티켓을 전달하는 '삼표 문화창고'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자사의 그룹웨어인 블루샘에 공연에 대한 기대감 등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티켓을 선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각 계열사 임직원 50여 명이 당첨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관람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창의적인 조직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소통 기회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 캠페인 성료

동국제강그룹이 임직원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 쏟고 있다.

동국제강그룹 3사(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는 '제 2회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을 시행하고, 4월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2023년 6월

###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재환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장 이명민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교육문화교류과장 이정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 △행정부장 신지현

◆ 월요신문 △산업팀장 편슬기

◆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원장·교장 임용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원장 이규필 △한국폴리텍 담수고등학교 교장 윤지현

### 부음

▲ 박노숙씨 별세, 박승환(무등일보 사회·교육팀 기자)씨 조부상 =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6일. 061-692-4444

▲ 이건희씨 별세, 이기성(목원대 외식조리·제과제빵학과 학과장)씨 부친상 = 14일, 대전한국병원장례식장 VIP 모란실, 발인 16일. 042-638-4440

▲ 최순임씨 별세, 조상주·상진·상열(대동문화재단 대표)·상종·상기·금순씨 모친상 = 13일 오후 광주 VIP장례타운 101호, 발인 16일. 062-521-4444

10<sup>th</sup>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거  
소렸다

# AI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 솔루션 ①



연운열의  
푸드톡톡

전분이나 셀룰로스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은 매우 작은 분자로 구성된 거대 중합체인데, 그 구성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부른다. 아미노산은 10~40개의 탄소·수소·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어도 1개의 아민그룹(-NH<sub>2</sub>-)에 속하는 질소원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필수아미노산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 라이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등 총 9가지이다.

이 아미노산들은 단백질 합성과 신체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근육 성장과 회복, 신경 전달, 면역 기능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단백질 식품, 특히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 등을 통해 이들 필수아

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

음식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은 20여 종류다. 특정 단백질 분자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아미노산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그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대부분을 포함한다. 짧은 아미노산 사슬들을 웹타이드라고 한다. 미오글로빈은 근육 세포에 산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중요한 단백질로, 특히 적색 근육 섬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오글로빈의 농도는 근육의 종류와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빠른 폭발적 힘을 요구하는 백색 근육 섬유는 미오글로빈 농도가 낮은 반면, 일반적으로 지구력 운동을 주로 담당하는 적색 근육 섬유에는 미오글로빈 농도가 높다.

이는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근육 조직 100g 당 0.5~1.5g 정도의 미오글로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동물들은 미오글로빈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미오글로빈 단백질 구조와 참치의 미오글로빈 단백질의 구조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매우 유사하지만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서열은 매우 다르다. 개인의 유전체, 대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예측된 구조를 기반으로 치료약 처방처럼 개인의 질환별 건강상태나 영양불균형에 맞는 메디푸드 개념의 영양소 레시피 처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유지하고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근력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보행과 낙상 등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단백질은 면역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다.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함으로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다. 단백질은 신체조직의 회복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자들은 상처나 수술 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빠른 회복에 필수적이다. 단백질 섭취가 적절하면 철분, 칼슘 등의 흡수가 향상되어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된다.

/ESG 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 저축은행과 관계형금융



기자 수첩  
김정산  
(금융부)

몇 년만에 지인을 만났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30분쯤 이야기를 나누니 편한 대화가 오갔다. 지인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알려줬다. 지인의 신용점수는 900점을 넘겼다. 은행권 신용대출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어림없었다. 은행권 한도는 200만~300만원 남짓. 결국 저축은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 지인에게 또 연락이 왔다. 저축은행에 대출 문의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전화였다. 저축은행이 디지털전환(DT)을 시도한지 수년이 지난 만큼 인공지능 상담이나 비대면 대출을 알아보라고 했다.

지인은 끝내 비대면으로 돈 빌리는데 실패했다. 인공지능 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에 그 가갈 수 있는 저축은행 점포는 지하철로 1시간을 움직여야 하는 곳에 있었다.

저축은행이 몸집 줄이기에 여념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수는 9563명이다. 한때 1만명을 돌파했지만 업황악화와 디지털전환을 병행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담 등에 투입한 인력은 애써 해고시키지 않지만 스스로 나간 자리를 애써 채우지는 않는다고 했다.

점포 또한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점포 수는 259곳이다. 연간 17곳 감소했다. M&A(인수합병)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역별 점포를 통합한 영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은행 점포 수는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제 금융회사에 디지털전환은 필수다. 오히려 대면 업무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저축은행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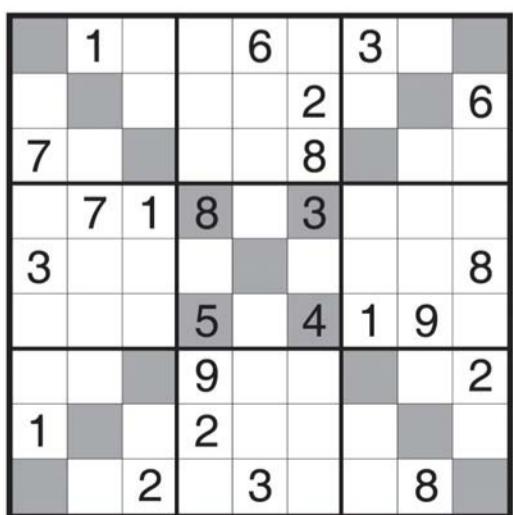
그럼에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형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내주고 중저신용 차주 대상 리테일(소매금융)은 상호금융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저축은행에서는 리테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취급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차주 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지점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의지만 있다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어디에나 방법은 있다.

/kimsan119@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줄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오늘의 운세

4월 15일 (음 3월 1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하게. 48년생 투자와 직선을 구분하고 행동. 60년생 힘들어도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야. 72년생 성질대로 하다가 복을 내치지 않도록. 84년생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는 세상 이치를 이해야 터득.

37년생 지나친 욕심은 좋은 기회를 놓친다. 49년생 가뭄이 해갈되듯이 일이 풀림. 61년생 중심을 세워 원망 듣지 않도록. 73년생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 하는 물건을 사게 된다. 85년생 분실 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38년생 마음이 움직여도 음주는 주의. 50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보다 많다. 62년생 같은 나이 토피파와의 거래가 순탄치 않다. 74년생 사람들이 좋아하면 신명들도 좋아 한다. 86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지만 오히려 손해를 본다.

39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51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63년생 일이 어려우나 이웃사촌이 도와준다. 75년생 애경사로 혼을 빼놓을 것 같은 오후이다. 87년생 고집을 세우면 식구들도 외면.

40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자신감을 가져라. 52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64년생 디자인 연구를 하도록. 76년생 욕심으로 재운이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88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41년생 업무 관련 약속을 소중히 해야. 53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워도 중심을 잡자. 65년생 부모님의 방문으로 하루가 즐겁다. 77년생 늦게 사랑을 빙자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89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닐 텐데.

42년생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54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66년생 남의 단점을 꼬집어 나도 손해. 78년생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공기도 사랑도 있기에. 90년생 창업하려면 여러 변수를 생각해서.

43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라. 55년생 예술적인 일을 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67년생 이익 앞에서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해야. 79년생 땀 흘려 얹는 것이 오래가는데. 91년생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자.

44년생 너무 방망이면 부도나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5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상사에게 공손하. 68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어도 좋겠으나 생각하라. 80년생 사색을 좋아하니 고독함도 즐긴다. 92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내탓이다.

45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 57년생 지나친 욕심만 줄이면 기분 좋은 허루. 69년생 연인을 만나니 행복한 날. 81년생 성공한 사람에게는 뒤에 어려움이 그만큼 많았을 것이다. 93년생 공부는 실용적인 인생의 도구이다.

46년생 큰 그림을 그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58년생 두드려라. 열릴 때가 온다. 70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동료들과 말조심. 82년생 정성스런 단심조만고(丹心照萬古)로 부끄러움이 적다. 94년생 아직보다는 주변 정리로 심리적 안정을.

47년생 기다리던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저어라. 59년생 보이지 않는 손톱 밑 작은 가시로 고생. 71년생 학술적으로 경쟁이 많은 하루. 83년생 비워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진리. 95년생 갑자기 비를 맞을 일이 있으니 운전을 주의해서.



## 김상회의四季

### 서울시 캐릭터 해치

서울시의 캐릭터는 해치다. 서울시 상징을 해치로 정한 지 꽤 되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해치는 전설 속의 동물이다. 예로부터 해치는 재앙을 막는 상서로운 동물이었고 재물을 가져오며 기쁨을 주는 동물이기도 했다. 비늘이 몸을 덮고 거드랑이에 날개 같은 깃털이 있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에는 뿔이 있고 목에 방울이 있는 것도 여느 동물의 모습과 다르다. 서울시에서 해치를 캐릭터로 선정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 훌륭한 선택이다. 재물을 상징하는 해치가 서울시를 번영시킬 것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재물과 기쁨을 가져올 것이며 재앙을 내쫓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와 같다. 집안에 재앙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길한 기운이 힘을 키운다. 길한 기운이 힘을 얻으면 좋은 운세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좋은 운세는 복된 재물을 가져온다. 광화문이나 경복궁 그리고 국회 앞에서도 해치 동상을 볼 수 있다. 해치가 재앙을 막아주고 번영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해치 동상에 담겨있는 것이다.

현대는 경제의 시대다. 경제력이 없으면 어떤 힘도 생기지 않는다. 나라도 자치단체도 개인도 경제력이 있어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도 자치단체도 개인도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재물이 있어야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개인에게 재물은 삶의 전부에 가깝다. 사람들이 명리 상담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묻는 게 재운이다. 많은 재물이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란다.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니 그려함을 충족시켜주는 게 재물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이다. 중심이 번영해야 나라도 부유해지고 시민들도 부유해진다. 서울은 돈이 모이는 곳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652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656 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식음료업계  
패키지 리뉴얼 등  
여름 성수기 대비  
L1

제약업계  
신약개발 자회사  
성장 가속화

L2



## 창업자 독서철학 담긴 ESG경영... 사회 곳곳 희망 배달하다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우아한형제들

산불피해 성금 전달,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어려운 이웃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 운영

독서 전도사 김봉진 전 의장, '독서경영' 펼쳐  
창업 당시부터 책값 제공 등 직원 성장 지원

'중소상공인 노무 해결 도움, 외식업주 자녀 장학금 신청자 모집, 방학 도시락 사업 성료,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 참여, 산불 피해 주민 성금 전달, 우아한 사장님 살핌 기금 사업 시작, 2000억원 규모 사회적 투자 이행 순항, 가족돌봄청년 지원 캠페인 전개,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진행한 사업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소외 계층 지원 프로젝트가 많은 걸 알 수 있다. 이 조직이 과연 배달 앱 운영사인지, 자원봉사단체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아한형제들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닌 1인 자영업자 지원에서부터 시작해 배민 라이더 교육, 결식 아동 급식 제공,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까지 사회 전방위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과 시장의 눈리로 돌아가는 배달 앱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두루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전 의장의 '독서 경영' 철학이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

#### ◆독서 전도사가 펼치는 '독서 경영'

배민 창업자인 김봉진 전 의장은 독서 전도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기저기 책을 전도하고 다닌다. '텍스트힙(텍스트와 힙의 합성어로 독서하는 것을 멋지다고 여기는 문화)' 열풍을 이끌고 있는 MZ세대가 '진짜 독서'가 아닌 '보여주기식 책 읽기'를 한다며 조롱당하기 훨씬 전부터 '과시용 독서'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인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적 독서가'로 소개한다.

김 전 의장은 저서 '책 잘 읽는 방법'에서 패션 독서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한편 두편 읽은 책을 SNS에 올리다 보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걸 인식하다 보면 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된다"며 "전후가 바뀐 것 같지만 아주 효과적이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굳이 자신의 몸매나 운동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과 같은 심리다"고 설명한다.

과시하다 보면 자연스레 스스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하게 되고, 과시적 소비같이 나쁜 것도 아니니 많은 사람에게 독서를 추천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은 "나는 내가 하나씩 행동한 결과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생각 없이 행동하면 생각 없는 사람이 되지만, 생각을 갖고 행동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돼간다"며 "몸이 하나도 안 좋아지는데 만날 운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과시적으로 꾸준히 책 읽기를 자랑하다 보면 독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독서 인구가 느는 것만큼 사회에 도움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권한다. 기업 구성원들도 예외는 아닐 터. 우아한형제들은 창업 당시



1 소상공인에 대출 보증 프로그램 지원. 2 중·소상공인 노무 해결 지원 프로그램. 3 외식업주 컨설팅.

/우아한형제들

연내 하남시에 8000m<sup>2</sup> 규모 '라이더 스쿨' 조성  
전기이륜차 투입 등 지속가능 배달환경 구축

금융기관과 손잡고 소상공인 보증대출 지원  
일회용품 안받기 최초 도입 등 친환경 정책도

부터 직원들에게 책값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왔다.

회사가 책값 지원을 시작한 건 책과 부담없이 친해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 관심가는 책을 자유롭게 사서 보게 하고, 안 읽는 건 덤이고, 재밌는 것만 골라 읽게 한다는 것. 학업 성취를 목표로 한 억지 독서에 질린 이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책을 읽히고자 특별히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없다고.

#### ◆다독하는 회사의 ESG

책을 가까이하는 구성원들로 이뤄진 회사의 ESG 활동은 남다르다. 그래서 유독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들이 많다. 배민은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금융기관과 손잡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해 자영업자 약 2600여명에게 도움을 줬다. 수혜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카카오뱅크와 추가로 1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금년 상반기 내 지원 대상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이륜차 실습 전문 교육기관인 '배

민 라이더 스쿨'도 확대 운영한다. 연내 약 8000m<sup>2</sup> 크기로 하남시에 신규 라이더 스쿨을 조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하남에 위치한 배민 라이더 스쿨은 연간 최대 1만명의 라이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수단별 탑승법·교통 법규 전문 강의실 ▲기능 주행 목적의 실내 배달 체험 교육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 이륜차 체험존 등을 갖췄다. 전 교육 과정에 무공해·무소음 전기 이륜차를 투입해 지속 가능한 배달 환경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고 배민은 강조했다.

라이더의 안전을 쟁기기 위해 배달 앱 종 처음으로 라이더 시간제 보험을 개발했다. 배민은 시간제 보험의 가격을 꾸준히 낮춰왔고, 배민 라이더 스쿨 교육 수료자들에게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과 보험을 연계하는 등 보험 기입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은 여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옵션도 배민이 최초로 도입했다. '먹지 않는 기본 찬 안 받기' 선택 기능도 적용해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섰다.

배민 관계자는 "사장님, 라이더,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배달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으로 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함께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와 오늘보다 더 나은 배달 문화, 지속 가능한 배달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윤리센터, 탁구협회 정계 요구...국가대표 교체  
·부당 인센티브 의혹  
▲이정후, 홈런 2방에...“올스타 가능” 국내 팬들  
기대감 고조  
/사진 뉴시스

▲황선우·김우민 등 경영 대표팀, 6주간 일본서  
훈련...세계선수권 대비  
▲서울서 만나는 고대 제국 ‘히타이트’...‘튀르키  
예-히타이트 국제학술회의’

▲158명 중 뽑힌 ‘부산 젊은 작가’ 8명 서울서  
전시  
▲청와대 ‘다시 봄’...‘48.7%→67.1%’ 관람객 가  
파른 증가세